

현대복식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장 영 주, 김 명 숙[†]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Feminism through Contemporary Fashion

Young-Ju Jang, Myung-Sook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Mokpo National Univ.

Abstract

The essence of Feminism is to establish the women's subjecthood as representing women's sexual characteristic and emerging from the fixed idea about women in our androcentric society.

Feminism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stages : the homogeneous theory which emphasized the similarity between men and women, the heterogeneous theory which persisted in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and underscored womanhood as an unique quality, androgynous theory which insisted on the common of two sexes since 1980's.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discus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eminism and the fashion, to examine its influence on shaping the contemporary fashion, and to infer what the women's fashion be like in the coming 21st century.

The result of the thesis is as follows :

First, the Mannish Look had been developed from the masculinization of female clothing by borrowing the style of women from that of men clothes since 1970's.

Second, the Glamor Look has been stressed as the feminism began to swing toward which emphasized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and women's sexual characteristics from the late 1970's.

Thir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he Fetish Look is still employed in various ways by the avant-garde designers, which impowered to increase the visualization of sex.

Fourth, the Androgynous Look was born, androgynous image and neutral image, by th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aspect of gender rather than the physical aspect from the middle 1980's.

KEY WORDS : Feminism, Mannish Look, Glamor Look, Fetish Look, Androgynous Look.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Mokpo National Univ.,
61 Dorim-ri, Chungkye-myun, Muan-gun, Chonnam, Korea 534-729
Tel : 0636-450-2532, Fax :
E-Mail :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복식은 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문화의 산물이다. 또한 복식은 그 시대에 내재된 사상적 특징을 상징하기도 하므로 하나의 문화스타일은 복식 주제로서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제공 해준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페미니즘(Feminism)이라는 하나의 문화사조를 대두시켰다.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의 사회 문화속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상, 정치상, 법률상의 권리의 확장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남성주도 사회가 형성해 온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즉 페미니즘은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남녀평등운동이다.

이러한 페미니즘은 20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전개된 여성해방운동과 1960, 70년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난 기존 가치에 대한 재평가에 의해 그동안 단일하게 기존 관습에 묶여 있던 여성의 주체적 의식을 일깨워주었고, 이로 인해 생활형태의 급진적인 변화와 함께 여성의 복식에도 혁신적인 변화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의복관습은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라고 정해져 왔다. 그러나 1900년을 전후로 대두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복식에 남성복의 요소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여성복의 기능화가 시도되었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성역할의 차이가 감소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의복에 반영되어 1960년대 중반부터 남성복에 여성복식의 영향이 나타나게 됨으로서 남녀간에 의복의 선택이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복식의 주역은 여성이었고 여성은 사회·문화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그들의 권리와 위치가 결정되어 왔다. 특히 복식이 여성의 자아의식의 표현수단이라고 볼 때 복식과 페미니즘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페미니즘과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박명희, 1991 : 강정화, 1993 : 홍경희, 1994 : 김경옥, 1995 : 박연주, 1995 : 손보경, 1997 : 신수옥, 1997 : 이의정·

양숙희, 1997 : 채수진·김혜연, 1999)는 대부분이 페미니즘이론에 근거해 신체적인 관념인 성(sex)성에 관점을 두고 복식을 논의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정보다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에 초점을 맞춰 현대 복식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대해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현대에서는 복식스타일이 남성과 여성의 성(sex)적인 차이보다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 특징 지워진다고 볼 때, 페미니즘사조를 반영한 사회문화적인 성(gender)에 관점을 두고 현대복식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복식에서 페미니즘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고찰하여 현대복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앞으로 전개될 21세기 여성복식의 미래상을 예측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여성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1910년대 뽀아레(Paul Poiret)의 복식을 현대복식의 기점으로 보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현대복식의 연구범위를 페미니즘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60년대 이후로 제한하였다.

2. 연구방법과 내용

연구방법은 근대와 현재에 걸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국내외 서적과 석·박사학위논문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시켰으며, 복식에 관계된 내용은 20세기 후반기(1960 ~)의 패션잡지와 복식에 관련된 서적, 복식사료, 논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페미니즘의 개념과 이론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페미니즘이 당시의 문화전반에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페미니즘 이론이 20세기 후반기의 복식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을 서술하고 현대의 페미니즘이 요구하는 여성복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페미니즘의 이론적 배경

1. 페미니즘의 개념 및 전개

페미니즘(Feminism)은 남녀동권론, 여성해방운동의 의미로 라틴어의 "femina(여성)"에서 유래된 말이며 발생론적 차원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함축된 의미를 지니는 까닭에 단일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다원주의적인 해석과 시각이 요구된다(이종승 1991).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문화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여성들은 그 인권을 근대에 와서야 찾기 시작했다. 남녀평등권의 확립이 어디까지나 여성 스스로가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노력하여 성취해야 될 문제라고 깨달은 여성들은 변혁을 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여성들이 그들의 처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직화 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이 컸고, 프랑스 혁명으로 본격화 되었다.

페미니즘은 체계적인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대와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동아원색 대백과사전 1983). 대부분 페미니즘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자유주의·급진적·실존주의·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있다.

1)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으로 본격화된 여성해방운동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현대 페미니즘이론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항하여 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페미니즘 사상의 시작이다. 1792년 메리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열등성은 교육기회의 부재에서 온다고 믿었다. 또한 하리엘 마르티노(Harriet Martineau)가 1823년에 쓴 「여성 교육에 관하여」라는 기사에 여성은 남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숙명여자 대학교·아세아 여성 문제 연구소편 1991).

현대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들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교육, 시민권, 경제적 기회 동등한 대우 등은 요구하였다. 결과 그들은 여성해방에 있어 교육적·법적 개혁

을 비롯한 많은 개혁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채수진·김혜연 1999).

그러나 이 이론의 한계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될 수 있다" 와 같이 남성의 가치에 의한 사상으로 "남자다운 덕목"과 인간다운 덕목을 동일시 하였다는 점이다(이소영 1995). 따라서 여성들은 의복에 의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없애고, 활동상 편리를 위해 여성의 의복 스타일을 남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1850년 블루머 여사가 여성 복식개혁의 일환으로 블루머즈(Bloomers)를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남자같은 여자"를 의미하는 매니쉬룩이 나타나게 되었다.

2)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

급진적 페미니즘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개혁적인 여권운동이다. 슬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은 여성억압의 근원을 출산·육아와 관련된 여성의 생리적 특징 등의 신체적 사실에서 찾고 있다. 또한 심정순·염경순(1995)은 여성억압이 성역할에 근거해서 "남성"이라는 계급보다 여성이 열등하다고 범주화 시킨데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성차별의 기반이 되는 구조로서 가부장제 개념을 도입하고 여성의 생리적 제약을 문제시한 점은 여성 문제의 다양한 영역들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60년대 이후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억압의 기초가 성에 기인한다고 보아 임신·출산과 같은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의 무한한 자유에 대한 욕구는 성에 대한 기존규범을 벗어나고자 했으며 그로 인한 성의식 해방은 여성의 성을 찬양하게 되었고 여성의 신체를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므로서 여성신체의 성적매력을 강조하는 글래머 룩(Glamor Look)과 페티시 룩(Fetish Look)이 출현하게 되었다.

3) 실존주의 페미니즘(Existential Feminism)

실존주의 페미니즘은 실존철학을 바탕으로 여성 문제를 규명하려는 사상으로, 실존철학과 페미니즘의 공통된 관심사는 자아(自我)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타자(他者)와의 참다운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 1908~

1986)는 그의 저서 「제2의 성 The Second Sex」(1949)에서 여성은 “타자성”으로 인해 억압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여성은 타자이며 타자성은 억압, 열등감과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억압당한 열등한 상황 이상의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보바르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문제를 널리 인식시켜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또한 현대의 모든 여권주의가 「제2의 성」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숙명여자대학교·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편 1991).

4)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

1980년대를 지나면서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제휴하여 가부장적 지배문화를 타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을 결합시키는 동기가 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이것 또는 저것, 나 또한 그것 주제 또는 객체의 이원론을 지양하고 양쪽을 다 포괄하는, 즉 남성과 여성의 속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접근방식을 새로운 대안으로 보았다(손보경 1997).

1980년대의 페미니즘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용하므로써 여성만의 해방으로부터 남녀공동의 인간해방운동으로 전회시켰고, 이러한 “양성성(androgyny)”을 통해 성차별주의를 극복하려 하였다. 즉 새로운 성 개념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양성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현대복식에서 “양성성”은 유니섹스모드와 연결되었고, 1980년대 말에는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입장에서 여성문제를 규명하려 했던 페미니즘 이론은 남성을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보고 여성의 남성화를 추구하는 동질론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면서도 다르게 보는 이질론과 1980년대 이후에 대두된 여성성과 남성성의 공유를 주장하는 양성화의 이론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2. 여성해방운동과 의상개혁

여성해방운동이란 U.N.이 1975년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그 이념을 <평등, 발전, 평화>로 정한 것처럼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자각 위에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자주적인 시민의 역할을 해야 하며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이효재 1989).

이러한 여성해방운동은 1960년대를 전후로 1기와 2기로 구분되어진다. 먼저 제1기의 여성해방운동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 시작되어 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계속된 수많은 여권주의적 활동과 계획들이다.

1840년대 미국에서의 세네카 펄스 대회는 여성권리를 위한 최초의 정치운동의 시작이었다. 그 후 미국의 수잔 B. 앤토니(Susan B. Anthony, 1820~1906)와 엘리자베스 C. 스탠튼(Elizabeth C. Stanton, 1815~1902), 아멜리아 블루머(Amelia Bloomer, 1818~1894)는 최초의 여성신문인 「Lily」지를 1848년에 발간하여 여성들의 생각을 외부에 발표하는 통로로 삼았다(박민자 1987).

1850년 블루머 여사는 「Lily」지에 크리놀린(crinoline) 착용을 반대하는 여성복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블루머즈(bloomers)를 소개하였다. 이 블루머즈는 10여년 동안 사회문제로 거론되기도 하였지만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산업발전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결과로 여성복에 남성복식요소의 도입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증가된 여가시간은 스포츠의 확산을 가져와 여성의 테일러드 수우트와 바지 착용의 일반화를 가져왔다(박연주 1995).

1920년대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많아져 기능성을 더욱 강조한 직선형의 실루엣이 유행하였고,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됨에 따라 여성들은 군복스타일인 무릎 바로 아래길이의 실용적인 스커트와 어깨폭이 넓은 자켓을 착용하였다. 이는 밀리터리 룩으로 오늘날까지 실용적으로 입혀지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의 하나로 새로운 여성운동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이는 여성해방운동의 제2기였다.

그리고 1960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식을 강요된 여성성을 조작하는 도구로 규정하고 여성의 해방과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길은 이러한 여성성을 없애는 것이라 보았

다. 또한 60년대에는 젊음과 자유에 대한 이상을 표현한 미니스커트가 유행하였다. 미니스커트는 여성의 인체를 모성과 관련시키지 않는, 반모성주의 복식으로 전통적인 개념의 여성의 성성을 무시한 옷이었다.

1960년대 말 여성해방운동 시위 중 브래지어를 불태운 사건은 이 시기의 여성해방운동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주었다. 브래지어는 가슴을 덮기도 하지만 여성의 성적인 부위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코르셋의 자취인 브래지어는 전체적인 여성 억압의 역사를 대변하는 아이템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여전히 외모에 제한된 여성성과 관련지어 여성을 정의하는 문화에 분노하면서 복식을 거부하는 상징이 되었다(전혜정 1994).

1970년대의 페미니즘은 기존의 억압된 여성의 성성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인체를 재해석하였다. 부정적 개념으로서의 여성의 인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여성인체의 해방을 주장하여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복식에 있어서 이러한 페미니즘사고는 글래머 룩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 등장한 앤드로지너스 룩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생물학적인 성(sex)보다 사회 문화적인 성(gender)에 기인한다는 페미니즘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장점을 동시에 공유하는 양식이다.

3. 미술과 페미니즘

페미니즘 미술은 1930년대에 여성 미술가들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초기의 여성해방운동과 마찬가지로 동질성의 공간에서 출발, 여성도 남성처럼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1971년 미국의 미술 사학자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의 소론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존재하지 않는가?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가 발표되어 미술사에 대해 처음으로 페미니즘에 의한 도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노클린은 위대한 여성 화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까닭은 여성화가들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성에게 불리한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김홍희 1994).

페미니즘 미술 전체를 보면, 매우 다원화되어 있고

탈 장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식적인 성향이 강하며,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도 폭 넓은 시각을 보여준다. 이러한 페미니즘 미술의 특징은 해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것의 양식상의 방법론들을 하나로 묶어 기술하기는 어렵다(홍경희 1994).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페미니즘 미술은 본격화되어 '여성작업장' 및 여성 미술가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페미니즘 작가들은 지나간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과 아울러 인종차별, 성차별 등에 항의하고, 연약하고 부드럽고 모호한 여성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강인하고 명확한 여성상을 창출하며, 다양한 주제와 재료 및 기법을 사용하여 주류미술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장희숙 1993).

그 대표적인 작가로는 주디 시카고(Judy Chicago)와 미리엄 샤피로(Miriam Schapiro)가 있으며 이들의 작품이 표현하는 주된 이미지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성적 차별성을 보였다.

1973년 샤피로는 "여성의 집(Woman House)"이라는 전시회에서 셰리 브로디(Sherry Brady)와 함께 "인형의 집(The Dollhouse)"을 파마쥬(Femmages)라는 추상화 속에서 직물폴라주와 아크릴화를 결합시켰다. 파마쥬는 여성만의 영역이자 가정의 소도구에 불과한 레이스, 직물, 단추 등을 작품의 소재로 이끌어내고 전통적인 여성의 기법인 꿰매고, 자르고, 수놓고, 아플리케하는 기법을 기존의 미술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직물을 예술작품의 소재로 사용하려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재료와 과정이 예우 받아온 기존의 방식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있게 도전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놓았다(김수기 등 1991). 관점에서 때로는 약하게 혹은 순진무구하게 혹은 에로틱하게 남성을 표현하였다.

Fig. 1에 나타난 주디 시카고(Judy Chicago)의 「만찬」은 여성들의 공동작업에 의한 것으로 이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를 증언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서 조각, 도자, 목화, 바느질 등 모두를 수용하고 있다.

Fig. 2의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의 작품속에 사용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남근주의적 관점에서 비추어진 여성의 모습으로 여성이 남성중심의 소비 경제 속에서 희생물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페미니즘 미술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존재하였다. 첫째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경험을 강조하며, '여성적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부계사회의 여성성을 증식하고 새로운 여성의 성적 특성(sexuality)을 나타내는 것, 둘째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하는 문화적 성별(gender)로서의 여성성을 파악함으로써 전통을 해체하는 것이다.

Ⅲ.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남녀동질론을 페미니즘 본래의 의미로 보는 초기의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이란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여성복에 남성복을 차용하게 하여 오늘날 매니쉬 룩을 성립시킨다. 이러한 초기의 페미니즘은 70년대 후반 남녀이질론을 강조하는 페미니즘으로 변화하면서 80년대 패션에서는 에로티시즘이 강한 글래머 룩이 강세를 보인다. 그리고 글래머 룩의 일부분으로 성의 가시화를 더욱 강조하는 페티시 룩은 개성적인 복식을 요구하며 기존의 복식 개념에서 벗어나 여성스러움을 부각시켰다.

8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성을 'sex'보다는 'gender'로 여기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복식에서 앤드로지너스 룩을 낳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대복식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을 매니쉬 룩, 글래머 룩, 페티시 룩, 앤드로지너스 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매니쉬 룩(Mannish Look)

매니쉬 룩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기저를 두었다. 초기 페미니즘의 남녀평등이란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여겨 이전의 '여성다움'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복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였다. 남녀동등권의 확립이 어디까지나 여성 스스로가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노력하여 성취해야 될 문제라고 깨달은 여성들은 우선 의복에 의하여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는 외양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그리고 활동상 편리를 위하여 여성의 의복스타일을

남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의 바지착용을 들 수 있으며(강혜원 1990), 여성이 바지를 입고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性)의 구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다. 의복에 따른 성(性)이 분명했던 시대에는 바지는 남성복의 전유물이었다. 중세이후 19세기 초까지 여성의 걸음으로서 바지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속옷으로서도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드로워즈(drawers)형태로 처음 착용되었다. 19세기중반 미국에서는 크리놀린(Crinoline) 착용을 반대하는 여성복식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1850년 아멜리아 블룸머(Amelia Bloomer)여사가 불편한 여성의 의상개혁운동의 일환으로써, 블룸머즈(bloomers) <Fig. 3>를 「Lily」誌에 소개하면서부터이다. 품이 넓고 주름이 많이 잡힌 바지형태로, 허리와 아랫부리에 고무줄을 넣어 입은 속옷이었고, 운동경기 때 스커트 없이 곁에 입혀지기도 하던(신상옥 1991) 블룸머즈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주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이와 같이 과거에 있어서 복식이 여성의 종속화를 위하여 이용되었다면 또한 이 종속화에 대한 반항운동을 위하여도 역시 복식이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 여성해방 운동가들은 복식을 여권운동의 표출수단으로 삼아 불편한 복식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남녀평등을 남장을 하는 것으로 표출한 것이다(강정화 1993).

여성복식에 남성복식요소의 도입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본격화되었고, 이는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의 결과였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여가시간은 스포츠의 확산을 가져와 여성의 테일러드 수우트와 바지 착용의 일반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 미국 패션은 여성해방과 성 개방이라는 두 가지 이슈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의복을 통한 여성들의 자기주장은 이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되어 바지를 착용하는 한편 신체를 노출하는 의복이 증가되었다(김명자 1986). 1960년 노만 로렐(Norman Norell)이 필로프 스커트(Culotte Skirt)를 디자인한 이래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1968년에 필로프 스커트를 발표하는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여성용 바지를 발표하였다.

1970년대에 여성해방운동의 확대로 여성들이 과거에는 남성들만의 직종이었던 분야에 진출하여 남자들과

경쟁하면서 활동하는데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의복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보급되었다. 여성들의 활동복은 대부분의 스타일이 의식적으로 남자복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1970년대와 1980년에 유니섹스 스타일을 지속시켰다. 그 예로 여성들이 남성복과 유사한 자켓, 바지, 조끼 타이를 착용한 것을 들 수 있다(Fig. 4). 당시의 바지와 테일러드 자켓의 팬츠 수우트와 낮은 굽의 신발은 직업여성들의 유니폼처럼 되었다(Fig. 5).

1970년대 중반 페미니스트들은 자연스러운 외모를 지향하였는데 이 시기의 자연스러운 외모 또한 남성적인 스타일을 모방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들은 남성적 분위기의 테일러드 자켓과 남성용 셔츠 등을 응용하여 여성의 비즈니스 수우트로 정착시켰다.

이처럼 70년대는 매니쉬 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다양하게 유행된 시대이며 남녀동질론을 강조하는 미국의 페미니즘이 1972년에 여성동등권 수정헌법안의 의회 통과 후 최성황기의 힘을 나타낸 때이다. 이러한 매니쉬 룩은 보수적이고 지적인 여성을 연출하는 클래식한 경향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는 보수적인 스타일로 여피족과 같은 성인 분위기의 캐리어 우먼에게 적합한 것이었다.

현대패션에 있어서 팬츠는 남성의 파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남성 스타일이라던가, 여성의 사회 활동을 과시하기 위한 스타일도 아닌 항상 느긋하고 우아하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여성의 생활상을 투영하는 패션으로써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팬츠 룩을 포함한 매니쉬 스타일은 현대복식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 중 한 스타일로 트렌치코트와 단정한 테일러드 수우트, 와이셔츠, 넥타이 등 남성복의 아이템을 여성 패션에 도입한 것으로, 매니쉬란 사전에 의하면 “남자같은 여자”를 의미한다(강정화 1993). 그러나 여성들이 편리하고 활동적이며 남성적인 스타일의 복식을 즐겨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에 그칠 뿐이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란 두 성의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다

2. 글래머 룩(Glamor Look)

글래머 룩은 급진적 페미니즘에 기저를 둔 것으로,

남녀의 성적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의 성을 찬양하며 재해석한 새로운 인체미학을 표현했다.

글래머는 총만한, 매혹적이란 뜻으로 글래머 룩의 특징은 인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살려 디자인하며 특히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한 관능적인 형태로 주로 실크나 벨벳 등 고급화된 옷감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또한 글래머 룩은 성개방 문화에 힘입은 페미니즘적 사고방식 뿐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美)보다는 스스로 즐기려는 쾌락주의적 사고방식 즉 나르시즘(Narcissim : 자기도취)에서 왔다고 본다. 최근 헐리우드 패션의 대두로 인해 글래머 룩은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손미희, 임영자 1995).

1970년대 후반부터 페미니즘은 남녀동질론에서 다시 남녀이질론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에 새롭게 보여진 페미니즘에 있어서 여성은 여성의 특징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여성의 특성은 남성에 의해 주도된 여성의 육체와 정신의 억압을 의미하는 반면 오늘날에 여성의 특성은 여성의 신체를 그런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뜻한다(강정화 1993).

복식사상 가장 선정적인 스타일은 1970년대 말에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의 성적매력을 표현하는 섹시모드로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주체성이 나타난 것이다. 선정적인 스타일은 단적으로 말하면 섹시(sexy)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한 패션이다(정홍숙 1981).

이것은 남녀동질론을 주장하는 초기 페미니즘이 여성의 성을 무시한 경향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반여성성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여성적인 경향은 직장을 갖고 있고 자기 영역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남성적 시각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즐기고 몸매를 드러내는 섹시한 의복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박명희 1991).

1964년 미국의 루디 건reich(Rudi Gernreich)은 획기적으로 가슴을 그대로 노출시킨 토폴리스(topless)수영복(Fig. 7)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육체의 노출로써 인간 내면에 있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며, 육체를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육체 그 자체를 복식미의 한 구성요소로써 받아들인 것이다. 노출의 방법은 미니(mini),

핫팬츠(hot pants), 슬리브리스(sleeveless), 깊은 데콜라주(decollage)등 디자인 자체에 의한 노출과 현대 여성들에게 점차 사라져가는 속옷이 겉옷으로 에로틱하게 나타나는 방법, 직물의 짜임새 사이로 신체를 비치게 하는 투명패션, 마지막으로 각종 슬릿 slit)과 컷팅(cutting)에 의한 노출로 분류할 수 있다.

속옷의 겉옷화는 브래지어, 슬립, 가터벨트(garter belt) 등의 란제리를 비롯하여 코르셋, 페티코트 등 속옷으로 착용하던 것을 겉옷으로 변형시켜 여성을 섹시한 분위기로 표현하는 것으로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속옷 종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창작력을 표현하는 아이템이 되었다. 특히 80년대 후반에는 몸의 일부를 대담하게 노출해서 섹시함을 느끼게 하는 란제리 룩이 강세를 보였다.

투명패션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표현하기 위해 피부를 드러내는 패션을 말한다. 1980년대 초반 투명한 옷감에 의해 신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의상이 많이 발표되었으며 중반에는 레이어드 룩의 연출효과를 상승시켜 주는 중요한 아이템의 하나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Fig. 8의 가슴 투영의 의미는 브래지어에 의해 억압되어온 가슴과, 남성에게 의해 억압되어온 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있어 가슴의 해방과 노출은 그 동안 여성의 위치를 매어두던 것에서의 탈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80년대에는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강조한 복식이 유행하였다. 즉 신체가 바로 패션으로서의 표현 역할을 하였다. 아름다운 육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추럴한 실루엣으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Fig. 9)은 결국 의복보다는 신체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패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옷이 신체를 감싸는 역할이기보다는 신체와 의상의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여 에로틱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이처럼 신체를 강조하는 글래머 룩은 인체를 표현과 자기 표현을 위하여 21세기 미래패션을 대표할 것이다(강정화 1993).

이런 경향은 수년동안 계속되어 결국 1987년부터는 여성다움을 인위적으로 과장한 스타일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여성의 인체를 우화적이고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퇴폐적으로 표현한 글래머 룩(Fig. 10)은 특정한

양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평범한 것과 극도로 세련된 것을 조화시킴으로써 유티와 극적인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과장한 스타일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안티패션(anti-fashion)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현대의 물질문명과 획일화된 현대 사회를 고발하고 인간성 회복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자유사상을 가지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수가 증가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의 인체를 속박하던 콜셋, 거들, 브라 등 많은 속옷들이 줄어드는 한편, 노출과 여성신체의 성적매력을 강조하는 글래머 룩이 성행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이전의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미를 새롭게 부각한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의복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와는 달리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적존재로서의 부각은 오히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남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처럼 글래머 룩은 몸의 일부를 대담하게 노출하는 스타일과 신체를 강조하는 스타일, 그리고 인체를 과장한 스타일로 나눌 수 있다.

3. 페티시 룩(Fetish Look)

글래머 룩의 일부분으로 성의 가시화를 더욱 강조하는 페티시 룩은 급진적 페미니즘에 기저를 두었다.

페티시(fetish)는 포르투갈어 '페티티소(feitico)'가 변한 말로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주물숭배와 성적도착 현상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19세기말 성심리학자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에빙(Richard Von Krafft-Ebing)은 페티시즘을 "여성신체의 특정한 부위와 관련된 개념과 관능적 욕망과의 결합체 혹은 여성의복의 특정품목과 욕정과의 결합체"라고 정의하며 의복의 아이템이나 신체의 일부분에서 성욕구를 표현한다고 하였다(신수옥 1997).

조이스 맥도걸(Joyce McDougall)은 페티시즘과 같은 성적 일탈 행위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네오 섹슈얼리티(neo-sexu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페티시즘을 '패션의 제3의 측면'으로 간주하였다(Joyce 1985).

페미니즘의 성장은 19세기 후반 성의 가시화를 증가

시켰을 뿐 아니라 남녀의 성역할 전도에 일익을 담당하여 페티시즘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다. 19세기 중반 남성에 대한 예측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꼴셋과 같은 불편한 여성복식에서 페티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보수성향의 증가로 인하여 페티시스트들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패션 주류에는 아직 많은 페티시 요소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New Look은 변형된 코르셋을 다시 패션에 도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잘록한 허리의 의상과 함께 뾰족한 구두와 페티코트 등의 의상이 성행하였다(Fig. 11).

복식에 있어서 페티시즘은 1960, 1970년대의 성해방의 성격을 가진 성 이탈의 재평가적 운동이었다. 페티시즘은 사회생물학적 입장에서 다루어지며, 유전적인 특질과 같은 생물학적인 결정론에 의해 좌우된 성이기는 보다는 사회적, 문화적인 생성물로서 남성성의 규정에 대한 도전과 여성성의 열망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에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자, 남녀복식의 구분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성에 따른 복식의 개념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려는 패션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의 성도착적 욕구를 나타내는 패션이 그 한 예로서 페티시 룩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반되는 성이 아닌 '지배' 또는 '복종'이라는 선택된 성역할에 따라서의 의복의 선택이 결정된다. 다시말해서 타고난 남·녀의 성에 따른 에로티시즘의 추구가 아닌 남·녀 두 개의 성(sex)을 공유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에로티시즘의 희열을 추구하는 것이다(이의정, 양숙희 1998).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페티시적인 복식은 남·여성을 위한 의상이며, 제3의 성의 표현성에 기초하여 여성성의 유희과 매력을 표현하듯이 남성도 마찬가지다(Richard 1994)라고 하였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티에르 뮈글러(Thierry Mugler),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안나 수이(Anna Sui),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에게 채택된 페티쉬 스타일은 대량생산에 의하여 유행되고 있다. 이것은 현대여성이 자신의 섹슈얼

리티에 책임이 있으며, 강요나 불편 그리고 패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페티시의 대상은 꼴셋, 앞치마, 부츠, 안경, 장갑, 손수건, 구두, 스타킹, 속옷 등이며, 드레스는 찢거나 터져 있어야 하고, 구두는 광이 나거나 삐걱대는 소리가 나야 한다. 가죽이나 고무로 만들어진 딱딱한 재질은 매끈하고, 광택이 나며 검정색이고, 부드러운 재질은 프릴이 있고, 가는 털, 란제리, 모피 등이 있다(신수옥 1997). 각종 꼴셋, 가죽, 고무, 모피나 새틴 소재의 옷, 길고 밀착된 스커트, 찢어진 의상 등의 페티시한 의상들이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으며 대중적인 페티시 복식은 킴키 부츠(Kinky Boots)와 catsuit이다. 무릎 길이나 대퇴부길이의 검은 하이힐 가죽부츠와 cat suit는 동물적인 특성이 강하고 섹시한 여성미를 표현한다.

페티시 룩에서 검정과 빨강은 다양한 도착적 의미와 색채상징성을 가지고 가장 선호되는 색상이며 가죽과 고무는 가장 선호되는 재질이다(Fig. 12).

1990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Fig. 13>에서 소용돌이(whirlpool) 모양의 마돈나(Madonna)의 Cone-Bra 노예의상을 통해 섹시한 여성미를 나타내며 기존관념을 뒤바꾸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페티시 룩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발과 슈즈(shoes)는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성적 암시의 대상으로 오늘날 서구 페티시즘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다.

Fig. 14와 같은 긴 부츠는 시선을 위로 유도하고 성적 환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페티시스트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다. 검은 색 가죽구두는 특히 눈길을 끌며, 검은 색 스타킹은 하얀 피부를 시각적으로 대비하여 강조한다.

슈즈의 크기는 작을수록, 굽높이와 굽모양은 높거나 뾰족할수록, 앞모양은 날렵한 형태일수록 그리고 슈즈의 길이는 다리의 성적 상징성과 결부되기 때문에 길수록 페티시하다.

이러한 페티시 복식은 여성의 성역할, 소재와 아이템, 구성, 디자인 요소 등에서 다양하게 병존하며, 역설적 이론 속에 비정통적인 정통성을 만들기 위한 의복의 카테일 효과로서 성적 조합을 시도하였다(Valerie 1996). 또한 페티시 룩은 더 이상 개인의 성도착이나 성적 하

위문화가 아니며 점차로 대중문화를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페티시즘과 관련된 물건과 이미지가 패션으로서 표면화되고 있다(이의정, 양숙희 1997).

4.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

앤드로지너스 룩은 페미니즘이론 중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기저를 두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생물학적인 성(sex)보다 사회문화적 성(gender)에 기인한다는 페미니즘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장점을 동시에 공유하는 양식이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남자와 여자라는 생리학적 성(sex)을 갖게 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자는 남성성(masculinity)을 여자는 여성성(femininity)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당연시 되어왔다.

복식에서도 남자는 남성적 이미지의 복식을, 여자는 여성적 이미지의 복식을 착용해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1900년을 전후로 하여 여성복식에 남성복의 요소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남성복식에 여성복식의 영향이 나타나 복식의 선택에 자유로움을 주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유니섹스 모드와 연결되었고, 1980년대 새로운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을 출현시켰다.

앤드로지너스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우 많은 의미를 획득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다(Alexandra, Joan 1976).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앤드로지너스란 '양성공유, 자동동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 알렉산드라 카프란(Alexandra G. Kaplan)과 존 빈(John P. Bean)은 그들의 저서에서 앤드로지너스는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하여 남자를 뜻하는 앤드로(andro)와 여자를 뜻하는 진(gy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스어에서 앤드로지너스는 단 하나의 유기체 안에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존재하는, 즉 양성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Alexandra, Joan 1976).

현대에 앤드로지너스는 육체적인 성보다 사회문화적인 성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양성성은 육체적, 성적이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사용되며 남녀의 심리적 속성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앤드로지너스의 이미지가 나온 것은 19세기

경으로, 이 당시 여성운동의 본격적인 활동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활발한 사회활동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성역할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은 정신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을 의미하는 앤드로지너스의 개념과 일치되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성(異性)의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지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표현방식이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사회 진출에 따른 활동적인 삶 자체를 포함한 멋이고,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자유로운 감성이고 미(美)에 대한 약의 없는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다(나채희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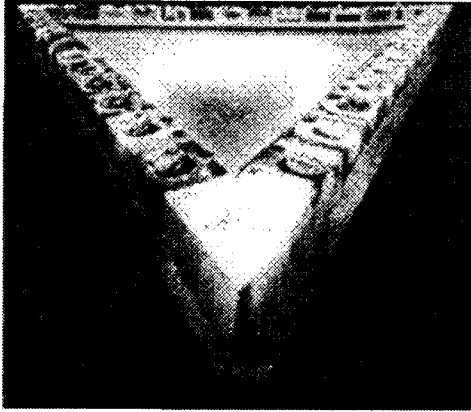
이와같이 앤드로지너스 룩은 관념적인 앤드로지너스의 개념이 시각적인 특징을 갖는 복식의 형태로 나타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완전한 분리가 아닌 서로의 특징을 자유롭게 조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멋을 창출해내고 있다(김경옥 1995).

이러한 조화에 있어 앤드로지너스 룩은 크게 양성적 이미지와 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게 된다. 양성적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중성적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결합되어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상태이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글자 그대로 양성적 이미지의 것이지만 중성적 이미지도 발산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미지의 표현을 하는데 있어 현대복식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첫째, 이성(異性)의 아이템이나 소품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셔츠와 조끼, 점퍼, 버버리, 바지 수우트를 사용하여 멋지게 조화시킴으로써 중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Fig. 15), 남성은 여성의 스커트나 블라우스 등을 착용하는 것이다(Fig. 16). 이외에 여성이 증절모, 넥타이, 담뱃대, 군화 등을(Fig. 17), 남성들이 반지나 목걸이, 스카프 등을 수용하고 있다(Fig. 18).

둘째, 디자인의 요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성의 straight silhouette과 남성의 fitted and princess silhouette, 여성복에 딱딱하고 투박하며 거친 소재, 무채색과 줄무늬, 체크 무늬를 사용하고 남성복에 부드럽고 비치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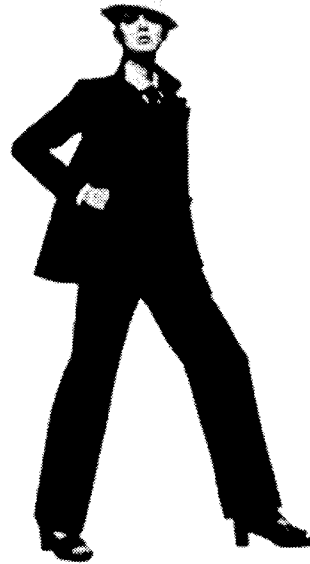
〈Fig. 1〉 만찬, 20세기 미술 운동총서 29.



〈Fig. 2〉 무제, 20세기 미술운동총서 29.



〈Fig. 3〉 블루머즈,
A History of Fashion,
p.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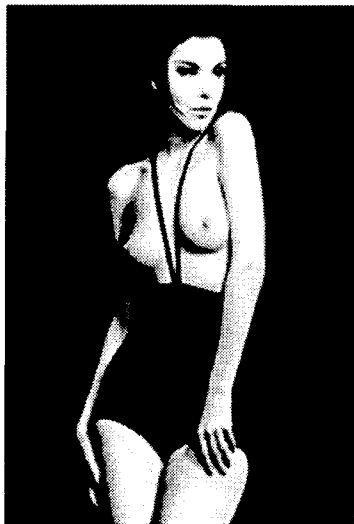
〈Fig. 4〉 줄무늬 테일러드
수우트와 증절모,
20th Century Fashion,
No.120.



〈Fig. 5〉 바지와 테일러드
자켓의 팬츠 수우트,
Yves · Sanit Laurent,
p.154.



〈Fig. 6〉 미니스커트,
A History of Fashion,
p.260.



〈Fig. 7〉 토폴리스 수영복.
The Rudi Gemreich Book,
p.71.



〈Fig. 8〉 가슴이 투영된 투명패션.
Yves Saint Laurent,
p.127.



〈Fig. 9〉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한 디자인,
Elle 1994. 8, p.146.



〈Fig. 10〉 여성의 인체를 유머러스하고
퇴폐적으로 표현,
Vogue 1995. 5, p.130.



〈Fig. 11〉 뉴-룩,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p.91.



〈Fig. 12〉 검은 페티시드레스, 페티시즘,
p.210.



〈Fig. 13〉 마돈나의 콘-브라 노예의상,
Infra-Apparel, p.51.



〈Fig. 14〉 페티시 부츠와 장갑, 페티시즘
p.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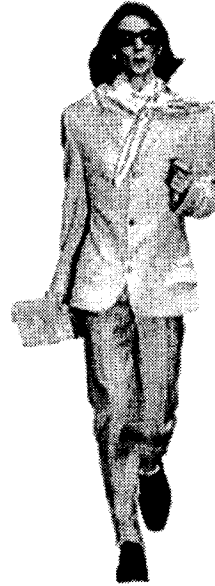
〈Fig. 15〉 중성적 이미지 표현,
Modain No.96, p.178.



〈Fig. 16〉 남성의 스커트 착용,
'95 S/S Collections, p.250.



〈Fig. 17〉 여성의 남성소품 사용,
Book Moda No.16, p.132.



〈Fig. 18〉 남성의 여성소품 사용,
Modain No.96, p.176.

적 이미지의 소재, 무채색과 더불어 원색과 파스텔톤의 색채, 여성적인 꽃무늬를 사용하여 앤드로지너스 룩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장식을 통한 것이다. 즉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디테일과 트리밍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성적 요소의 것들이 수용되어 앤드로지너스 룩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앤드로지너스 룩의 성적 이미지의 표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앤드로지너스 룩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메이크업에 의한 중성적 이미지와 여성의 짧은 머리(Fig. 15), 남성의 긴 머리(Fig. 18) 등은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메이크업은 여성이 남성처럼 눈썹을 길게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은 본래의 얼굴(Fig. 16)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색조 화장을 함으로써 남자가 옅은 화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흰색이 많이 포함된 광택없는 색조화장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 같이 표현한다.

이와 같은 앤드로지너스 룩은 1960년대 유니섹스 룩(unisex look)에 이은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의 반영으로 기존의 고정관념 즉, 규범으로 여겨왔던 성개념을 남녀가 서로의 것을 모방함으로써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가 극대화되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난다(김이은 1995). 앤드로지너스 룩은 특히 1960년대 유니섹스 룩에서 벗어나 여성만의 변화가 아닌 남성도 변하게 만들었으며,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 수 있는 복식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오늘날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진정한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의 인격 즉 인간성의 회복이며 페미니즘 사상에서 이상적인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적인 역할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여성이다. 이러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이질성을 주장하면서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새로운 여성성에 대한 재정립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으로 본격화된 페미니즘 운동은 근대의 여성복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현재에도 그 표현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다양한 페미니즘 이론에 따라 현대복식에는 매니쉬 룩과 글래머 룩, 페티시 룩, 앤

드로지너스 룩이라는 양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첫째, 매니쉬 룩(Mannish Look)은 남녀동질론을 페미니즘 본래의 의미로 보는 초기의 페미니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남녀평등을 여자가 남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여겨 패션에서도 여성복에 남성복을 착용하였다.

둘째, 글래머 룩(Glamor Look)은 1970년대 후반 페미니즘이 남녀동질론에서 남녀이질론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게 되면서 여성의 성적 특징을 표현하는 룩으로 70년대 후반부터 강세를 보였다. 글래머 룩의 표현방법으로는 노출에 의한 방법과 신체를 강조하는 방법, 인체를 과장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페티시 룩(Fetish Look)은 19세기 후반 성의 가시화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에게 몰셋, 긴부츠, 하이힐과 같은 페티시적인 요소들이 채택되어지면서 현대복식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성을 생물학적인 성인 'sex'보다는 사회·문화적 성인 'gender'로 여기는 페미니즘이 나타나 복식에 앤드로지너스 룩을 성립시켰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성(異性)의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지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표현방식이다.

현대에 앤드로지너스 룩은 의미 그대로 양성적 이미지의 것이지만 중성적 이미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표현을 하는 데에는 이성의 아이টে이나 소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실루엣이나 소재, 색채, 문양 등 디자인의 요소를 이용하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등 장식을 통해 표현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복식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여성미를 표현하게 될 것이고 복식은 더 이상 남녀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계속 커지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다원주의에 적합한 이상적인 인간형을 추구

하고 있는 앤드로지너스 룩은 앞으로 더욱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다.

또한 현대의 물질 문명과 획일화된 현대사회를 고발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 신체를 강조하는 글래머 룩이 21세기 미래 패션을 대표할 것이다.

본 연구가 서구의 복식에 치중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국내의 복식 경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계속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1. 강정화(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Femin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강혜원(1990). 의상사회심리학. pp.188~189, 교문사, 서울.
3. 고영복(1994). 현대사회문제. pp.230~231,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4. 김경옥(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Androgynous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명자(1986). 의상패션개론. pp.44~45, 형설출판사, 서울.
6. 김이은(1995).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홍희(1994). 여성 그 다름과 힘. pp.185~186, 삼신각, 서울.
8. 나채희(1986). New Wave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동아원색대백과사전 28(1983). p.494, 동아출판사, 서울.
10. 박명희(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박민자(1987). Bloomer 의상의 역사적 고찰. 경희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6:230.
12. 박연주(1995). 매니쉬룩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손미희·임영자(1995). 1990년대 의상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복식 26:40.
14. 손보경(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식 연구

- 조지오 아르마니와 도나 카란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숙명여자대학교 ·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1991). 여성학. pp.11~22,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6. 신수옥(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특성 연구 - '성논리'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소영 역(1995). Rosemarie Tong(著). 페미니즘사상. 한신문화사, 서울.
 18. 이의정 · 양숙희(1997). 패션에 반영된 페티시즘 연구 - 콜셋과 슈즈의 예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5(1):245.
 19. 심정순 · 염경순 역(1995). Maggie Human(著). 페미니즘 이론사전. 삼신각, 서울.
 20. 신상옥(1991). 서양복식사. 수학사, 서울.
 21. 이의정 · 양숙희(1998). 페티시즘. pp.51~52, 경춘사, 서울.
 22. 이종승(1991). 포스트모던 상황속의 페미니즘 비평. pp.21~30, 선미술, 서울.
 23. 이효재(1989). 여성과 사회. pp.90~105, 정우사, 서울.
 24. 전혜정(1994). 페미니즘과 패션. 서울여대여성연구소총.
 25. 정홍숙(1981). 복식문화사. pp.300~318, 교문사, 서울.
 26. 김수기의 6인 역(1991). H. H. 에너슨(著). 현대미술의 역사 2. pp.670~672, 인터내셔널 아트 · 디자인, 서울.
 27. 장희숙 역(1993). 휘트니 채드윅(著). 여권신장파. pp.79~80, 열화당, 서울.
 28. 채수진 · 김혜연(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한국복식학회, 43 : pp.203~224.
 29. 홍경희(1994). 미술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타자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0. Alexandra G. Kaplan, Joan P. Bean(1976). Beyond sex-Role Stereotypes :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p.2, Boston · Toronto : little, Brown and company.
 31. Book Moda No.16.
 32. '95 S/S Collections
 33. ELLE 1994. 8.
 34. Ernestine Carter(1975). 20th Century Fashion. London : Eyre Methuen Ltd.
 35. '96/97 A/W Fashion Show.
 36. Georgina O'hara(1989).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37. Anderson J. Black & Madge Garland(1992). A History of Fashion. London. Orbis Publishing.
 38. Joyce McDougall(1985). Theatres of the mind : Illusion and Truth the Psychoanalytic Stage. p.252, N.Y. Basic Books.
 39. Modain No.95.
 40. Modain No.96.
 41. Mode et Mode No.286.
 42. Peggy Moffitt, William Claxton(1991). The Rudi Gernreich Book, N.Y. Rizz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43. Richard Martin, Harold Koda(1993). Infra-Apparel,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44. Richard Smith(1994). Jean Paul Gaultier. Half a Rebel, p.58, N.Y. Gaytimes.
 45. Sarah Kent, Jacque sline Morreau(1985). Women's Images of Men, N.Y. The Pitman Press.
 46. Valerie Steele(1996). Fetish. p.58, N.Y. Univ of Oxford Press.
 47. Vogue 1995. 1.
 48. Vogue 1995. 2.
 49. Vogue 1995. 5.
 50. WWD 1995. 10.
 51. Yves Saint Laurent,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83.